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가공모 심의 총평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가공모 1차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가공모 1차 지원심의
- 회의일시 : 2022년 10월 6일(목요일) 10:00
- 방법 : 비대면 온라인 회의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가공모는 당초 선정 사업지 중에서 지자체 예산 매칭 불가로 사업을 포기한 곳이 발생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추가공모에 접수된 5개 신청단체 중 행정결격 1건을 제외한 4개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2곳을 2-3차 지원심의 대상 단체로 선정하였다. 한 단체의 사업은 프로젝트의 규모나 내용은 소박한 편이지만 지역에 기반한 팀에 의해 장기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또 한 단체의 작업은 역사적 장소를 대상으로 한 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서 성과를 기대해본다.

똑같은 지역이 없듯이 똑같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있을 수 없다. 공공미술은 어디까지나 지역의 특성에 맞춤형 사업이 되어야 한다. 모든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기획과 성과는 그러한 지역 특성화에서 나온다.

이들 두 곳의 대상지는 2차 현장 실사를 거치게 되며, 3차 발표 심의를 거쳐 최종 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 일동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가공모 3차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가공모 3차 지원심의
- 회의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요일) 12:00
- 회의장소 : 켄싱턴호텔 여의도

202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가공모에 지원한 5개 단체 중 행정결격 1건을 제외하고 2개 단체가 2-3차 심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뒤이어 1개 단체가 2-3차 심의를 포기하여 최종 1개를 대상으로 심의하였고 최종 선정하였다.

공공미술 사업이 상당히 일반화되면서 평준화, 유사화 되는 형태를 많이 보게 된다. 특히 최근의 도시재생이나 문화도시 사업 등과 맞물리면서 그 목적이나 방법 역시 비슷비슷해지고 있다. 하지만 미술 자체도 그러하거나와 공공미술은 더욱 다자간 관계의 미술이며 지역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모든 공공미술은 사실 복제 불가능한 창의적 접근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사업 주체의 예술성, 대상지의 장소성, 주민 및 행정과의 관계성 등을 고루 살피면서 해당 사업만의 개성과 솔루션을 보여주는 작업을 기대하고 찾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사업 주체의 경험과 역량, 지역 공동체의 요구, 행정적인 뒷받침 등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추가공모로 진행되는 바람에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업 편성 및 예산 집행이 촉박한 편이다. 이런 점이 아쉽지만 사업 주체의 역량과 행정의 의지를 신뢰하여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선정 예술 단체의 경험과 지역과의 밀착성, 행정의 지원 등을 믿지만, 아직은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공공미술의 창의성이 더 발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환경미화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예술성과 공공성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창조적으로 결합되기를 바란다. 지역 장소 관련 작업만이 아니라 마을미술관과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도 소홀함 없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